

2. 의례복

1) 수 의

수의를 죽은 다음에 입는 옷으로 맹인옷 또는 죽은옷이라고 한다.

(1) 남 성

수의를 재료는 몸에 닿는 속옷이나 안감은 삼베로 하고, 겉옷이나 겉감은 무명으로 하였다. 수의를 입는 순서는 속바지-바지-속적삼·저고리-버선-두루마기-낮쌍개-지금-천금 순이다. 낮쌍개는 마포와 면을 두 겹으로 하여 끈이 달려 있지 않게 만들어 그냥 얼굴을 덮도록 한다. 턱받이도 삼베와 면을 두 겹으로 만들어 턱을 싸고 머리 위에서 묶도록 한다. 하의의 속바지는 삼베를 가지고 홑겹으로 만들고 바지는 무명으로 만든 후 바지 속에 속바지를 끼워 허리에서 시침하여 징거두었다. 바지 허리끈은 허리 뒤에서 징거두어 경황없이 찾지 않도록 하였다.

상의는 삼베로 속적삼을 만들고 저고리는 무명으로 하였다. 속적삼은 소매 길이를 저고리보다 19cm 짧게 한 후 32cm의 한삼을 같은 삼베로 붙여 박아 손을 싸도록 하여 손싸개를 따로 준비하지 않게 하였다. 속적삼은 저고리 안에 끼운 후 깃을 시침하여 함께 입도록 했다.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는 홑겹 흰 무명으로 만든다. 버선은 두 겹으로 하는데 속은 마포로 하고 겉은 무명으로 하며, 신기 편하도록 회목을 넓게 하였다. 시신 밑에 까는 지금과 덮는 천금은 마포와 면을 사용하여 두 겹으로 만들었다. 가정에 따라 지금과 천금을 평소에 아끼던 깨끗한 이불로 사용하기도 한다.¹⁾

(2) 여 성

여자 수의를 입는 순서를 보면 속바지·바지-속치마·치마-속적삼·저고리-두루마기-버선-낮쌍개-지금-천금 순이다. 속적삼은 홑겹 삼베로 만들고 무명으로 겹저고리를 만든다. 남자저고리와 같이 속적삼의 소매를 15cm 정도 짧게 하고 32cm의 한삼을 달았다. 한삼을 달아 손을 싸므로 손싸개는 만들지 않는다. 겹저고리 속에 속적삼을 끼우고 깃을 징거두어 함께 입도록 하였다. 바지도 남자 수의와 마찬가지로 마포 홑겹으로 속바지를 만들고 무명 홑겹으로 겹바지를 만들었으며 겹바지 속에 속바지를 끼우고 한 개의 허리에 달았다. 허리의 주름은 앞쪽에서 3개를 잡고 뒤쪽은 2개를 잡았으며 바지의 뒤는 입히기 편리하도록 허리에서 밑까지 터놓았다. 치마도 마포로 속치마를 만들고 무명으로 겹치마를 만들어 한 개의 허리에 달아 입히기 편리하도록 했다.

1)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책, 1986, 236쪽.